

## 유럽연합(EU) 핵심원자재법, 공급망실사지침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

- K-ESG 확산 등 “선제적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”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3.26.(화), 공급망 및 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, 최근 유럽연합(EU)의 관련 입법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였다.

유럽연합이 그간 추진해 온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실사지침은 최종 승인 및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, 탄소중립산업법은 올해 2월 3자(집행위원회-이사회-의회)간 합의를 마쳤다.

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(역내 추출 10%, 가공 40%, 재활용 25% 이상) 및 수입의존도(65% 미만)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,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.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. 일정규모(직원 1,000명, 전 세계 순매출 €4.5억 이상 역내기업 등)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·환경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대상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평가된다.

한편, 탄소중립기술 제조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산업법의 3자 합의안은 원자력, 태양광, 풍력 등 대상기술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하며, 역외기업 차별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.

정부는 그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·대책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,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, 양국 고위급 회담 등 여러 계기에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을 유럽연합 측에 전달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.

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“유럽연합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및 기회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업계·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,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 총괄 >	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	책임자	과 장	윤선영 (044-203-4870)
		담당자	사무관	유영신 (044-203-4876)
		담당자	사무관	강석하 (044-203-4875)
	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	책임자	과 장	윤진영 (044-203-4890)
		담당자	사무관	김관수 (044-203-4896)

대한민국  
지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## 참고

## 유관기관 회의 개요

### □ 회의목적

- 유럽연합(EU)의 공급망 및 친환경 법안\*이 발효될 예정인 바, 유관 기관 등 전문가들과 관련 입법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점검
- \* 핵심원자재법(CRMA), 공급망실사지침(CSDDD), 탄소중립산업법(NZIA)

### □ 회의개요

- (일시·장소) '24.3.26.(화) 10:30~12:00(90분), 산업연구원 8층 중회의실(세종)
- (참석자) 신통상전략지원관(주재), 신통상전략과, 기후에너지통상과, 구주통상과, 광물자원팀 등
- (유관기관) 한국무역협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능률협회컨설팅
- (연구기관)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
- (로펌) 법무법인 태평양

### □ 세부일정(안)

구 분		주 요 내 용	비 고
10:30~10:40	10'	○ 모두발언	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
10:40~11:25	45'	○ EU 입법동향, 주요내용과 대응방안 ① 핵심원자재법(CRMA) ② 공급망실사지침(CSDDD) ③ 탄소중립산업법(NZIA)	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산업연구원
11:25~11:55	30'	○ 안건 논의 -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- 종합토의	참석자
11:55~12:00	5'	○ 마무리발언	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